



가난한 날의 행복

박경옥

제 남편은 이 제목을 보고 매우 낭만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낭만적으로 들리기는 하지만 실제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는 성경은 현실적인 책입니다. 성경은 비록 거칠게 말하고 있지만 어떤 철학들처럼 잘못된 낙관주의적 망상을 말하지 않습니다. 사실과 진리를 말하는 현실적인 말씀입니다.

성경은 현실을 말한다

주위를 둘러 보십시오. 모두 '성공'에 미쳐 있습니다. 얼마 전 아이들과 함께 교보문고에 갈 일이 있었는데요. 베스트 셀러는 모두 '성공'에 관한 노하우를 말하는 책들이었습니다. 인간이면 누구나 갖고 있는 '성공'에 대한 욕구를 이용하여 많은 사람들이 비현실적인 낭만적 환상을 던져 주고 있습니다.

신학에도 '성공신학'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긍정적이고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교인들에게 심어주면 교회가 부흥한다고 합니다. 이 이론은, 결국 우리가 원하는 성공(그것이 영적인 성공이든, 경제적인 성공이든)을 하나님이 만들어 내시게끔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중심주의이지,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의 개념은 다릅니다. 타락한 세상에서 고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리고 혼돈스런 상황들을 만나게 될 때, 삶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며 사는 것이 '성공'입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것과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을 배우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을 보면, 실패하고 죄지은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사실은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이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이라는 개념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성공은 올라갔다고 생각하는 순간 내려오게 되어 있는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합니다. 우리 민족은 전통적으로 현세적이었다고 합니다. 불교의 역사가 오래 되기는 했어도 사람들은 극락 세계보다는 현세에서의 복을 구했고 유교 역시 현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오랫동안 우리 민족의 생활을 좌우하고 있는 샤머니즘은 현세에서의 안녕을 비는 것이 그 임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세를 말하는 기독교가 들어 와도 사람들

이 문서는 라브리 웹사이트에서 내려받은 것으로, 개인 및 그룹 공부를 위해서만 인쇄, 복사, 배포 등이 허가되었습니다.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하려면 별도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라브리의 공식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This document was downloaded from L'Abri Korea. Printing and distribution are permitted only for study purposes. For all other uses, please obtain permission from L'Abri. L'Abri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is document.

은 생각을 바꾸지 않으려고 합니다. 현세가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일시적인 성공을 했거나 못했거나 그것에 좌우되지 말아야 할 것을 성경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이렇게 살 때에 기독인은 오히려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 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 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디모데전서 6:7). 돈이나 명예를 얼마나 갖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짧은 이 세상에서의 ‘성공’은 영원한 다음 세상의 삶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관심사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돈이나 일을 선한 청지기로서 관리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의 행복입니다.

가난한 날의 행복

1)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시험하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생각해 보면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자세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어 앵고 거두지도 앵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먹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마태복음 6:26)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라는 이 말씀은 언제나 지켜져 왔습니다. 우리가 부유할 때나 어려울 때나 그리고 월급봉투에 온 정신을 빼앗기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이 약속을 지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마태복음 6:31-33). 우리는 이 말씀이 내 개인의 삶에서 드러나고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비록 내가 열심히 일해서 생기는 돈이지만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을 잊고 있지는 않은지요? 또한 우리가 일하거나 공부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인지 나의 야망이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바다 위를 걸어갔을 때는 빠지지 않았지만 예수님에게서 눈을 떼어 바다를 보았을 때는 빠졌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이 가고 있는 방향과 목표가 어디에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저희 부부가 일하는 라브리 선교회는 회원제도가 없기 때문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회비도 없습니다. 재정 청원이나 모금 혹은 학생을 모집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로 동역하는 기도 가족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조지 물러나 허드슨 테일러들로부터 배운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저희가 믿음이 좋다고 자랑하는 것으로 오해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순간순간 흔들리며 염려와 좌절로 고통스러워할 때도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되는 이 간단한 일을 어렵게 생각하는, 저를 포함한 인간들의 어리석음이 가슴아프기는 하지만, 작으나마 그 믿음을 가지고 살 때의 축복을 몇 가지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돈 벌어오는 사람의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에게 주시는 돈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불만이 없게 됩니다. 집에 들어 오는 돈의 액수만큼 자신의 능력을 평가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

니다. 때마다 채워 주시는 식량으로 사는 것도 아슬아슬한 재미를 맛보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대하면, 오늘도 신실하게 당신의 자녀를 먹이시는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리는 것이 자연스럽게 됩니다. 이보다 더한 축복이 있을까요?

기독인은 빵이나 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음식에만 달려 있지 않고 지금도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 있다는 것을 매일의 삶 속에서 과시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매일매일 예수님의 정신을 따르자는 것입니다. 40일을 굶으신 후에 마귀에게 먹을 것으로 시험받으실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곧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어야 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마태복음 4:4)

이 말씀은 인간은 본래부터 육체적인 양식과 함께 동시에 영적인 양식을 섭취해야 정상인데, 마귀가 육체적인 양식만 있으면 될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바로 그 정신을 날마다 실험하고 실천하여야 합니다. 만약 금식을 해야 한다면 그 이유 중에 하나도 우리가 밥만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과시하는 것입니다.

2) 빚지지 말고 창조적으로 살아가자.

한동안 우리 사회에는 “돈을 빌려면 남의 돈을 많이 빌려 쓸 줄 알아야 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사업하는 분들은 사업 자금을 빌려 쓰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회사에서는 0 원까지 대출이 된다는 것을 고객에게 알려 줌으로써, 빚지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게끔 은근히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랑의 빛 외에는 어떤 빚도 지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만약 빚을 진 가정이 있으면 빨리 갚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성경은 “빚을 졌으면 빨리 갚으라”고 충고합니다(열왕기하 4:7)

빚을 안 지려면 버는 만큼 쓰고 살아야 합니다. 버는 것보다 더 쓰면 빚지게 되고 그것은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아껴서 쓰고, 자립하려고 애쓰고, 절약이 몸에 배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위에서는 온갖 광고들이 우리의 욕망을 한껏 자극합니다. 더 좋은 것, 더 편리한 것이 매일 새롭게 나옵니다. 우리의 욕망은 자꾸 커집니다. 터질 줄 모르고 계속 불어 대는 풍선처럼 우리의 욕망은 불어만 갑니다.

우리는 돈에 대해 자신을 훈련시켜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돈 때문에 제한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기를 원하시는 재물에 만족한다면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돈 때문에 걱정되고 피곤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이상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사탄은 이렇게 하와를 유혹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말을 현대어로 바꾸면 이렇게입니다: “너는 왜 참으로 네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전부 다 달라고 하지 않느냐?”

돈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더많은 돈이 아니라 더 많은 훈련입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이 헛되도다”(전5:10)

바울 사도도 복음 전파가 긴급한 사명이었지만 교회에 짐을 지우지 않고 자급자족하기 위해 텐트를 만들어 팔았다는 것을 아시지요?(사도행전 20:34; 18:3) 그리고 아가보의 집에 둔 헌옷인지 겹옷이지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책도 쓰던 책을 가져오라고 했고요.(디모데후서 4:13)

<돈 걱정 없는 가정>을 쓴 래리 버켓은 재정 문제를 바르게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아래의 말씀을 적용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누가복음 16:10)

저희 가정이 누리는데 또 하나의 축복은, 물건을 사는 대신 웬만하면 집에서 만들어 쓰게 되기 때문에 가족들이 재주가 늘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신 창의력과 상상력, 그리고 다양한 손재주들이 개발됩니다. 아이들은 폐품으로 장난감이나 정리함, 진열대 등을 만듭니다. 남편은 필요한 나무 집기나 놀이집 등을 톱과 망치로 만듭니다.”

손님들의 식사를 준비하는 저는, 값싸고 건강에 좋은 맛있는 음식을 계속해서 만들어 내야 하기 때문에 여간 신경이 쓰이는 게 아닙니다. 이 방면에 무관심했던 저 자신을 계속 채찍질하며, 머릿속엔 음식 그림을 그립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지는 것은 했지만, 우리는 아직도 위대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창의력을 개발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사고력, 상상력을 개발하세요. 무엇이 필요할 때 이미 가지고 있는 우리의 재주를 활용할 수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세요.

3)어려울 때에라도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살자.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은 우리의 동정심이 발동할 때나 하는 선택적인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사야 58장 6-10절을 보면,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 주며 멍에의 줄을 풀러 주며--주린 자에게 네 식물을 나눠주며--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돈은 하나님의 돈이요 우리는 다만 돈을 맡은 청지기로서,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쓰는 것이 마땅합니다. 초대 교회의 교인들이 했던 것처럼(사도행전 2:44-47), 내 돈을 내 것이라 생각 말고 나누어 써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저희 가정에서도 몇 군데를 돕고 있는데, 계속 돕는 것이 매우 힘이 듭니다. 그것은 곧 덜 먹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이들도 마땅히 이 일에 동참해야 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도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기독교는 처음부터 이윤의 분배와 부의 순환을 부르짖었습니다. (고린도 후서 8:13,14; 사도행전 2:44,45) “이제 너희의 유여한 것으로 저희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저희 유여한 것으로 너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평균하게 하려 함이라”(고린도후서 8:14) 칼빈은 이 정신의 뿌리가 ‘만나의 재분배’라고 생각했습니다.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음식이었고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을 상징하지만,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이윤의 재분배 정신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정신을 사도 바울은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게 하라.”(고린도후서 8:15)고 정리했습니다. 경제학자 비엘리는 이를 “차등화된 평등(a differentiated equality)을 지향하는 것”이라고 말했는데, 타당한 지적이라 생각합니다. 한국의 기업이나 기독교인 가정에서는 직업과 구제 등을 통해 ‘만나의 재분배’ 정신을 이상으로만 묶어두지 말고 실천할 필요가 있습니다.

4)적은 이윤이라도 깨끗한 돈을 벌어라.

돈을 벌기 위해 죄짓는 것빼고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불법 취업이나 죄짓는 것이 아

나라면, 아르바이트든지 파트타임 직업이든지 하찮은 일이든지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깨끗한 돈을 벌어야 합니다. 아무리 입에 풀칠할 것이 없더라도 더러운 돈을 벌면 죄 짓는 것은 물론이고 그것이 쌓이면 나라를 부실하게 만들고 망하게 합니다.

사람이나 기업이나 이윤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특히 이윤이 없다면 기업이 살아 남을 방법이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이윤 추구가 잘못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면 기업이 무조건 이윤을 남기는 것이 중요한가? 사실 많은 기업들이 이윤 자체를 궁극적 목적으로 잘못 설정하고 더러운 이윤까지 거머쥐고 있습니다.

그것은 경계해야 할 사항 중의 하나로서, 만약 그 이윤이 사원들과 고객들의 불만족, 부정확한 상거래, 세금포탈 등을 감수한 것이라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정당한 이윤추구가 아니라 '축재'입니다.

성경은 적은 이윤이라도 깨끗한 이윤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잠언 16:8) 왜냐하면 남을 속여서 얻은 이윤은 처음에는 달지만, 얼마 안 가서 그것은 "입안의 모래"와 같아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깨끗한 이윤은 사원들이 정직하게 일하고, 공정한 임금이 지불되고, 제품의 품질이 우수하고, 가격이 적정하며, 유통과정이 바르고, 정당한 세금을 지불하는 것 등을 말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6-15; 이사야 1:22)

타락한 세상에서 지혜롭게 사는 길을 제시하기로 유명한 잠언은 정당한 이윤 추구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즉 불의하게 모든 재물은 빨리 소멸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라는 것이지만, 깨끗한 손으로 모은 재물은 늘어나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망령되어 얻은 재물은 줄어들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한결같지 않은 추는 여호와께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잠언 13:11, 20:23)

여기에서 세금문제가 제일 복잡한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다가 거래를 중지당하거나 돈을 벌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이중장부를 만들거나 거래처에 뇌물을 주는 일 따위는 하지 않아야 합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의 세금납부 정신입니다.

"이 기업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는 생각이 없으면 세금을 제대로 못 냅니다. 나는 관리인이며 청지기일 뿐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내고 싶은 만큼 충분히 세금을 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경제 환경이 그것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의 목표는 하루 빨리 정상화하는 것입니다." 그는 아직도 납세문제로 고민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루 속히 고치는 것이 목표라는 말에 기대를 걸어봅니다.

하루 아침에 일확천금을 벌려는 생각은 옳지 않습니다.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하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잠언 28:20) 청지기로서의 바른 자세는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골로새서 3:23)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누가복음 16:12)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먹이시리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공중의 나는 새를 보십시오. 새들이 사람들보다 일찍 일어나고 먹이를 얻기 위해 부지런히 다닌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우리 모두의 궁극적 목적은 돈이 아니라 돈으로 사람을 봉사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봉사와 열매가 없는 돈이나 이윤, 재산은 결국 '부자 청년'처럼 구원의 올무가 되거나 (마가복음 10:17-22), '어리석은 부자'처럼 탐욕의 무덤이 되고 말 것입니다. (누가복음 12:13-21)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기 쉬운 '돈'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히 까만 활자가 아니라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축복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이 짧은 세상 뿐 아니라 영원한 저 세상에 가도 여전히 한 점 변하지 않는 진리이며, 가난한 날에도 여전히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진리가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